

인삼 약초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이 동 역
(주) 일화전무

A. 서론

고려 인삼의 학명은 Panax Ginseng C.A.Meyer이다. Panax란 그리스어로 만능약을 의미하고 Ginseng은 인삼의 중국음이고 C.A.Meyer는 인삼의 학명을 붙인 소련 식물학자의 이름으로서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의 전지역,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내의 산속(북위 34-43도)과 중국 동북부(북위43-47도)극동 시베리아(북위40-48)를 원산으로 하는 오가피과의 다년생 초목으로 신비의 영약으로 귀중하게 이용되어 왔다.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는 고려인삼의 자생지를 한국 및 한국과 인접한 중국지방의 심산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인삼이라고 하면 천연적으로 산에서 자생하는 산

삼과 산삼씨앗을 집 근처 깊은 산속에 파종하여 인위적으로 재배한 장뇌삼과 약 4백만년 전 풍기군수 주세봉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대량으로 재배한 가삼을 통틀어서 말하는 용어이다.

인삼을 본론학적 고증에서 보면 전한원제시대(BC48-33) 사유가 저술한 문헌인 급취장에서 처음 인삼의 삼(蔘)자가 나오고 있으며 후한(AD196-219)의 문헌 장준경의 삼한론에서는 상약으로서 113방의 처방중 인삼을 사용한 처방이 21방에 관한 기록이 보이며, 또한 BC100년경에 저술된 이시진의 신농본초경에서 인삼의 산지, 품질을 비롯하여 그 약효와 응용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타난다. 또한 AD549년 백제 성왕 27년에 초나라와 인삼을

교역하였으며 AD627년 신라와 당나라가 인삼을 교역하고 AD739년 발해 문왕은 일본과 인삼교역을 하였다고 나오고 있다. 한편 고구려 시대 신농본초경집주에는 고구려 인삼에 대하여 외형 기미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 하였고 질에 대해서는 상당산, 백제산, 고구려산 등을 비교 설명하였다. 그리고 백제시대에 신농본초경집주에서는 당시 백제 인삼의 형태학적 특징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삼의 모양은 가늘고 길며 견백한 것이 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신라 인삼이 당과에서 수호적 증품으로 이용된 것으로, 예를들어 성덕왕33년 여름 4월에 인삼 200근, 효성왕3년 인삼100근 등 구체적 수량까지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인삼이 함유된 처방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신경안정제로 정지환, 인삼환, 오래된 기침가래를 치료하는 인삼전등이 있다. 조선 시대 중종 시절 1537년에 지방관에서 인삼 공납을 강화하여 삼폐가 발생되며 1610년 광해군때 허준의 동의 보감이 출현되고 1693년 인삼 공납을 상인들이 악용함으로서 주민들이 조정에 구제를 요구하고 1753-1771년 영조시절 삼폐가 매년 늘어나 주민들이 도망가는 일이 계속되고 1793년 중국 청나라에서 인삼의 산중재배를 금지 시켰다. 이렇게 고려 인삼의 문화 인삼사를 장황하게 서술한 이유는, 1797년 정조 21년 3월 거상 20여명에 홍삼의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홍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1849년 철종때 홍삼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으며 1894년 고종 9월에 대한제국탁지부에서 홍삼부칙을 공포하고 1908년 순종 2년 7월 20일 홍삼전매법을 공포한 이후 1995년 1월30일 행정 쇄신 위원회에서 1996년 부터 홍삼 전매제도 폐지와 인삼업부를 농수산부로 이관하면서 88년동안 정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 경쟁 상대 없이 인삼 아니 홍삼의

연구와 판매를 1개의 기관에서만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 때 연구는 독점적인 지배 하에 순전히 상업적인 연구가 우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론하건데 홍삼 용어가 1797년 이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는, 중국의 상한론의 처방부터 현재의 한의서에 수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처방들이 홍삼이 아닌 산삼이나 장뇌삼 또는 재배 백삼을 이용하였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B. 수출 부진을 야기시킨 이유

현재 인삼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이 있다. 80년대까지 한국은 전세계 인삼시장의 46%를 점유하였으나 90년대에 오면서 40%미만으로 줄고 반대로 중국은 50% 이상으로 증가하고 화기삼을 생산하는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시장의 10%정도를 점유하는 실정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한국은 20%미만으로 떨어지고 중국은 60% 이상을 점유하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재배 인삼은 대부분 우리와 중

이 같은 고려인삼으로서 재배는 북위 43-47도인 중국 동북부 즉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공전에서 산지로 되어있는 한국과 인접한 중국지방 즉 길림성의 생산량이 중국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독점적인 체제하에서 인삼 산업을 유도하였고 결국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상업적인 연구로 추락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홍보전략을 구사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결국 가격, 효능, 안정성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수출의 길은 상당히 험란할 것으로 추측되는 바이다. 사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BC100년 경의 저술된 신농본초경에서 이미 언급된 효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되는 연구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였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어떠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기 힘들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는 냉정히 이제까지의 우리의 연구와 홍보의 잘못된 점을 밝혀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한국에서 재배된 것만이 좋다고 한다면 신토불이라하여 한국인에게는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인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홍삼은 그 어떠한 인삼보다도 좋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연구된 홍삼의 효능만을 가지고 세계시장의 소비자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가 상대방에게 역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들어 홍삼은 혈압이 높거나 열이 있는 사람에게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확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결국 화기삼에게 역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연구 결과 중에는 백삼이나 홍삼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발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재배삼과의 가격, 홍보, 안정성 및 백삼과 홍삼을 확인 가능한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리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서 빠른 시간에 대처의 방법을 찾는 것이 향후 한국 인삼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자 한다. 분석은 (주)일화에서 하였으며 일부는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것도 있으며 sample은 한국 인삼은 금산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중국인삼은 미국, 일본, 한국등으로 수출 중인 최우수 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원삼가격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한국산 미삼과 중국산 미삼의 가격차이는 1999년 2.35배, 2000년 2.3배, 2002년 3배, 2003년 4배, 2004년 3.6배, 2005년 4.9배로서 가격면에서의 경쟁력은 매년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해외에서 특히 독일을 제외한 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유럽의 대부분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는 전혀 경쟁력을 상실하는 수치이다.

<연도별 백삼 가격>

연도	단위	생건삼	미삼	중국산미삼
1999년	KG	39,294	41,342	17,589
2000년	KG	46,456	50,261	21,947
2001년	KG	51,004	53,413	24,650
2002년	KG	64,570	72,472	24,001
2003년	KG	89,167	91,560	23,090
2004년	KG	94,973	92,106	25,485
2005년	KG	100,000	97,287	20,000



2: 효능

일반적으로 인삼의 효능 중 가장 많이 언급 되는 것은 인삼 사포닌으로 인삼 배당체이다.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평균 사포닌량은 한국산이 평균 112.5mg/g ,중국산은 157mg/g이다. Ginsenoside 함량은 6종류(Rg1, Re, Rb1, Rb2, Rd)의 전체 Total 평균이 한국산은 70.54mg/g, 중국산은 94.8mg/g으로서 사포닌의 효능만을 볼 때는 중국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까지 밝혀진 사포닌의 효능으로 설명할 때 수출 홍보에는 상당히 설득력을 잃었다고 보인다.

<인삼 농축액의 사포닌과 Ginsenoide함량>

국가	년도	조사포닌 (mg/g)	Ginsenoside(mg/g)							
			Rg1	Re	Rb1	Rc	Rb2	Rd	Total	
한국	2002년	125	4.29	13.05	20.69	12.15	10.36	10.06	70.6	
		119	4.15	14.00	21.05	11.08	10.65	10.67	70.6	
		120	4.35	12.55	20.78	10.98	11.17	11.64	71.47	
	2003년	115	4.10	12.00	20.41	10.34	10.98	10.47	68.3	
		112	4.95	12.45	20.47	11.05	11.05	10.21	70.18	
		113	4.05	12.40	21.14	10.67	10.97	11.10	70.33	
	2004년	105	4.54	12.01	20.87	11.74	11.67	10.88	71.71	
		108	4.20	12.64	20.97	10.84	10.33	11.07	70.05	
		110	4.30	12.04	20.33	12.11	10.45	10.64	69.87	
	2005년	110	4.18	12.78	20.78	11.41	10.88	11.09	71.12	
		104	4.67	11.07	20.69	10.99	10.67	11.34	69.43	
		109	4.88	11.99	21.78	12.30	10.99	10.89	72.83	
	중국	2002년	156	4.38	16.48	25.42	17.10	17.29	13.36	94.03
			150	4.61	16.40	25.61	17.09	17.66	13.50	94.87
			148	4.66	17.05	25.77	17.55	17.40	12.08	94.51
2003년		155	4.78	14.99	24.89	17.67	17.00	13.11	92.44	
		150	4.30	15.88	23.79	16.98	18.05	12.99	91.99	
		162	4.99	16.30	25.42	17.88	17.66	13.47	95.72	
2004년		156	4.10	16.44	25.33	18.04	17.88	14.08	95.87	
		150	4.34	17.06	24.88	18.33	17.30	13.25	95.16	
		155	4.68	15.33	26.04	17.45	16.99	13.77	94.26	
2005년		165	4.74	16.41	25.22	17.00	18.07	13.82	95.26	
		170	4.99	16.77	25.46	17.64	17.55	14.07	96.48	
		168	4.65	17.08	25.77	17.88	17.40	14.06	96.84	

또한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백삼과 홍삼의 사포닌 함량과 아미노산, 무기질의 함량 비교도 심각히 재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삼 중의 비타민은 대부분 수용성인 비타민B로서 홍삼의 제조방법(증숙) 과정중에 상당히 많은량이 유출되므로 백삼중의 비타민 함유량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아래 함량분석 자료는 한국인삼사에서 발췌된 것임)

〈사포닌〉

saponin	백삼	홍삼	약리작용
G-Rb1	0.5	0.4	중추 신경 억제 작용: 체자세이완작용, Grip근력감소, 진통작용, 최면작용, 정신안정작용, 각막과 이개반사시험, 체온강하, 해열작용, 혈청단백질 합성 촉진작용, 중성지방분해 억제 작용, 인슐린 유사작용, 콜레스테롤 생합성 촉진작용, 플라스민 활성화작용, RNA 합성 촉진 작용, 호르몬 분비 촉진작용, 지속적 혈압강하작용, 항스트레스 작용, 장점막의 Na ⁺ ,K-ATPase 활성화 촉진, 장관운동의 항진 등
G-Rb2	0.2	0.2	중추신경 억제작용, DNA, RNA 합성촉진, 플라스민 활성화작용,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분비촉진작용, 항당뇨작용
G-Rc	0.3	0.1	중추신경 억제작용, 혈청단백질합성 촉진작용, 플라스민 활성화작용,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분비 촉진작용, 항당뇨 작용
G-Rd	0.2	0.036	부신피질호르몬 분비촉진
G-Re	0.2	0.2	중추신경 억제작용, DNA, RNA 촉진작용, 플라스민 활성화작용,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분비촉진, 장점막의 Na ⁺ ,K-ATPase의 화알성촉진, 항스트레스 작용, 심장운동의 억제방지 작용
G-Rg1	0.2	0.3	중추신경 흥분작용, 항피로작용, 피로회복작용, 기억, 학습기능 개선작용 DNA, RNA, 합성촉진 작용(간에서 DNA의존성 RNA 중합효소의 활성증가), 플라스민 활성화작용, 일시적인 혈압상승

〈비타민〉

종류	mg/100g	작용	결핍증
엽산(Bc)	2000-7000	항 빈혈작용, 성장발육에 관여, 소화기 점막의 정상화	장관이상, 빈혈
나이아신(B3)	6.3	세포내의 에너지 생성반응, 신경전달계	신경장해, 설사, 피부염
비타민C	3.9	면역기능강화, 철분흡수조장, 골격, 치아 혈관 강화, 신 체구조유지보수(콜라겐형성)	저항성저하, 치주염, 출혈, 괴혈병
비오틴(H)	0.92	피부지방대사기능 정상화, 세균감염의 저항작용, 성장 촉진작용	피부염, 모발손상
판토텐산(B5)	0.66-1.0	신체조직기능의 정상화, 해독작용, 노화방지	신경장해, 장관이상
리보플라빈(B2)	0.04-0.06	건강한 피부유지, 영양소의 체내이용에 작용하여 에너 지를 세포로 방출	피부와 점막의 변형

〈아미노산〉

아미노산	백삼	홍삼	약리작용
Aspartic acid	67.69	43.82	피로회복, 저항력증가
Threonin	683.06	64.05	지방간 예방, 대사동화작용, 소화기 장관기능강화
Glutamic acid	25.38	21.24	궤양치료, 피로회복, 알콜중독 조절, 정신분열 조절
Glycine	9.11	2.7	세포생성 과정에서 산소유리, 면역체계유지, 호르몬 제조
Alanine	53.37	35.06	근육세포, 뇌 신경조직의 에너지 공급원, 면역체계강화(항체형성)
Valine	43.61	12.14	정신적 활기, 근육조화, 평온한 정서
Methionine	2.28	-	간기능강화, 지방축적방지, 해리작용, 머리카락 성장촉진
Isoleucine	33.52	10.11	
Leucine	46.21	6.41	에너지생성, 뇌상부의 자극, 주의력
Tyrosine	26.36	-	우울증 극복, 기억력개선, 주의력증진
Phenylalanine	48.49	13.48	주의력, 항우울제, 기억력개선
Lysine	52.39	-	Ca흡수도움, 항체 호르몬, 효소형성에 도움
Histidine	27.01	4.05	류미치스 관절염, 알리지성 질환, 궤양, 빈혈치료
Arginine	1871.8	591.6	면역반응 개선, 상처치유, 간재생증진, 근육성장과 조직수복에 중요
Total	2990.3	804.7	면역반응 개선, 상처치유, 간재생증진, 근육성장과 조직수복에 중요

〈무기질〉

무기물	백삼	홍삼	약리작용	약리작용
회분	4.81	4.64		
P	1.09	1.49	뼈 치아 조직의 구성성분, 체내의 산 알카리 평형 유지, 신경조직, 정신활동	발육불량, 굶주, 뇌기능 장애, 남성성불능
K	1.76	0.91	심장 근육기능 조절, 성장 촉진작용, 체조직의 산성화 방지, 심장 맥박 정상유지, 호르몬 분비촉진, 혈액정화, 여성기능장애 예방	소아 설사증, 부종 고혈압 심장마비
Ca	0.33	0.43	생명유지에 중요, 뼈의 주성분, 뼈 치아의 강화, 신경작용조절, 심박동의 정상화, 임신기 수유계에 필요	감기, 골다공증, 충치, 우울증
Na	0.075	0.152	전해질의 균형유지, 영양소의 침투성 압력조절, 호르몬분비, 혈압상승작용	구토, 무기력, 역사병, 호흡장애
S	0.51	0.45	아름다움을 만드는 미네랄, 모발 피부 손톱생성, 산화환원에 필요	소톱파괴, 탈모, 습진, 기미
Si	0.16	0.18	골격강화 모발 손톱 이빨의 정상 발육에 필요, 결핵 점막 과민증 피부장애의 예방과 치료	손발톱 파손, 주름살, 탈모 골다공증
Mg	0.147	0.044	효소반응 에너지 생산활동 촉매역할, 심장건강유지, 현연정신신경안정제, 콜레스테롤 축적방지(동맥경화예방)	신경장애, 근육경련, 동맥경화, 정신착란
Al	0.72	0.108		
Fe	0.04	0.076	적혈구(헤모글로빈)의 주성분, 체내의 산화효소에 불가결한 물질, 스트레스와 병에대한 저항력 증가	빈혈, 저항력저하, 피로, 두통, 성욕부진
Zn	76.6	23.1	RNA, DNA형성과 단백질 합성에 필요, 인슐린 안정 및 지속성 연장, 생식선 호르몬 활동, 발육 보조, 생식기관의 기능발휘	당뇨병, 발육부진, 난산, 불임, 탈모
Cu	14.5	12.5	RNA생산에 필요, 단백질 대사 병회복에 필요, 골격신경관련조직의 발달	빈혈, 탈모, 소화장애, 백발
Mo	11.2		구리독 예방, 탄수화물 대사 원활	
Mn	45.2	31.2	인 활성화, 지방의 소화 흡수 보조, 생식기능 유선기능의 정상화	발육지체, 소화장애, 생식기능장애
B	28.4			
V	0.02			
Ge	240-4189		인체내 산소공급을 풍부하게 함, 혈액순환 촉진, 암, 바이러스 억제, NK세포 및 식암세포 증가	
Co	0.059		조혈제, 악성빈혈치료	악성빈혈

3. 셋째: 안정성(농약, 중금속)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이 인삼의 잔류 농약은 국내 기준은 적합하나 한국산 인삼으로는 수출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심각히 생각해볼 문제이다. 특히 BHC나 Quintozen은 각국 (특히 미국, 유럽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농약으로서 향후 이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인삼 수출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본다.

아래 도표는 한국과 중국의 농약과 중금속을 분석한 표이다. 중금속은 한국산이나 중국산이나 거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1998년 10월 인삼분할 캡슐이 procymidone, PCNB 함유로 미국 FDA에 의해 수입 경고된 후 2000년 8월까지 총8개의 뿌리와 분말, 추출액제품이 수입 경고된 상태이며 해당 제품은 모두 procymidone, PCNB 함유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함유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대 인삼산업연구센터 임병옥 서술편에서 발췌)

각국 인삼의 잔류농약 규제 종류수는 한국이 26종, 유럽지역 103종, 미국 6종이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허용기준이다. 유럽이나 미국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농약중 Quintozene은 한국은 엑기스 기준 2ppm이하, 미국은 0.005ppm 이하, 유럽은 1ppm이하이나 실제 유럽각국의 Buyer들은 0.3ppm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procymidone은 한국은 기준이 없으며 미국은 0.003ppm이하, 유럽은 0.1ppm이하로서 아래 도표에서 볼 때 Quintozene은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Buyer 요구기준을 상당히 초과되므로 현재 한국산 인삼으로 미국이나 유럽등에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표〉

	잔류농약(ppm)		중금속(ppm)				
	BHC	Quintozene	As	Cd	Pb	Sn	Hg
한국	0.075	0.658	0.095	N.D	N.D	0.095	N.D
	0.060	0.554	0.310	N.D	N.D	0.105	N.D
	0.085	0.479	0.347	N.D	N.D	0.064	N.D
	0.065	0.620	0.264	N.D	N.D	0.064	N.D
	0.050	0.479	0.210	N.D	N.D	0.089	N.D
	0.045	0.382	0.641	N.D	N.D	0.145	N.D
	0.065	0.410	0.378	N.D	N.D	0.167	N.D
	0.070	0.350	0.249	N.D	N.D	0.068	N.D
	0.020	0.410	0.159	N.D	N.D	0.247	N.D
	0.010	0.345	0.357	N.D	N.D	0.106	N.D
	0.023	0.250	0.416	N.D	N.D	0.099	N.D
	0.027	0.270	0.325	N.D	N.D	0.045	N.D
중국	0.008	0.080	0.105	N.D	N.D	0.210	N.D
	0.006	0.075	0.310	N.D	N.D	0.105	N.D
	0.007	0.084	0.479	N.D	N.D	0.064	N.D
	0.010	0.105	0.341	N.D	N.D	0.241	N.D
	0.008	0.070	0.158	N.D	N.D	0.067	N.D
	0.009	0.085	0.247	N.D	N.D	0.067	N.D
	0.005	0.100	0.308	N.D	N.D	0.090	N.D
	0.004	0.095	0.264	N.D	N.D	0.181	N.D
	0.009	0.047	0.347	N.D	N.D	0.226	N.D
	0.010	0.080	0.264	N.D	N.D	0.304	N.D
	0.008	0.108	0.410	N.D	N.D	0.416	N.D
	0.007	0.090	0.310	N.D	N.D	0.088	N.D

4. 넷째: 백삼과 홍삼의 확인 방법이 가능한가?

백삼과 홍삼의 확인 방법은 건강기능식품공전과 대한 약전에 수재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는 Rb1과 Rg1가, 대한 약전에는 Rg1가 검출되면 홍삼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약전에서는 홍삼가루에 무수초산을 넣고 황산을 넣어 적갈색을 나타내면 홍삼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원형홍삼을 제외하고는 홍삼을 백삼과 구별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홍삼에 비해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백삼을 홍삼으로 표기해 놓아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하여 놓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한국삼이 최고이고 홍삼위주의 정책과 연구 홍보만을 한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출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인삼의 연구와 정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여 옛부터 최고의 인삼으로 불리는 한국산 고려인삼의 재부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C. 결론

고려인삼이 언제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약 2천년전 중국의 전한시대 사육가 저술한 급취장에 삼 혹은 인삼이란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이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중국 최고의 임상서로 오늘날 까지 활용되고 있는 후한시대의 상한잡병론에는 총113 처방중에 인삼배합 처방이 21방이나 기재되어있어 인삼의 치료약으로서 널리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인삼에 대한 연구는 더욱 과학화 체계화되었고,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효능 효과는 인삼의 학명 그대로 만병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고려 인삼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고려인삼과 비슷한 성분을 갖는 인삼이 세계각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미국삼, 전칠삼, 죽절삼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삼은 고려인삼과는 식물종, 학명, 모양, 효능, 효과가 다른 식물이다. 비록 비슷한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지만 고려인삼을 따라올 수 없는 식물이다.

이처럼 고려인삼은 우수하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외국 소비자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면 수출은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연구방향이 옳은지를 재검토하고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연구 즉 원가, 효능, 안정성, 홍삼과 백삼의 과학적 구별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